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중국진출 수산기업의 후속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07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해양산업경영학과

장 춘 봉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중국진출 수산기업의 후속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장 영 수

이 논문을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월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해양산업경영학과

장 춘 봉

장춘봉의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7년 8월 일



주 심 이 상 고 (인)

위 원 송 정 헌 (인)

위 원 장 영 수 (인)

## < 목 차 >

### *Abstract*

<b>제 1 장 서론</b> .....	<b>1</b>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b>제 2 장 선행연구</b> .....	<b>3</b>
제 1 절 후속투자 개념에 관한 고찰 .....	3
제 2 절 후속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고찰 .....	5
<b>제 3 장 한국 수산업의 대중국 교역 및 투자 현황</b> .....	<b>7</b>
제 1 절 한·중 수산물 교역 현황 .....	7
1. 한국의 수산물 교역 실태 .....	7
2. 한·중 수산물 교역 집중도분석 .....	8
3. 중국 수산물의 교역 경로 .....	12
제 2 절 대중국 해외현지법인 현황 및 사례분석 .....	19
1. 대중국 해외현지법인현황 .....	19
2. 사례분석 .....	22
<b>제 4 장 실증분석</b> .....	<b>26</b>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	26
제 2 절 변수의 정의와 측정 .....	28
제 3 절 로지스틱 회귀분석 .....	36
<b>제 5 장 결론</b> .....	<b>40</b>
제 1 절 연구결과 .....	40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	43

【참고문헌】 .....45

【부 록】 .....48



## <표 목 차>

<표 3-1> 한국의 수산물 교역 실태 .....	7
<표 3-2> 한국의 총수입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	8
<표 3-3> 한국의 총수입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	9
<표 3-4> 한국의 총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	10
<표 3-5> 한국의 총수출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	11
<표 3-6> 한중 페리 여객선 운항 현황 .....	15
<표 3-7> 한국의 대중국 수산 투자 유형 및 분포 .....	19
<표 3-8> 한국의 대중국 수산 투자 규모 및 분포 .....	21
<표 3-9> A사 현지법인현황 .....	23
<표 3-10> B사 현지법인현황 .....	24
<표 3-11> C 현지법인현황 .....	25
<표 4-1> 가설설정 .....	28
<표 4-2> 연구변수 .....	29
<표 4-3> 설문지 배포 및 회수 현황 .....	30
<표 4-4> 기업요인 요인분석표 .....	31
<표 4-5> 비용요인 요인분석표 .....	32
<표 4-6> 리스크요인 요인분석표 .....	32
<표 4-7> 인프라요인 요인분석표 .....	33
<표 4-8> 시장요인 요인분석표 .....	34
<표 4-9> 신뢰도 분석표 .....	35
<표 4-10>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	37
<표 4-11> 가설검증 결과 .....	38

## <그림 목 차>

<그림 3-1> 중국 수산물의 교역 경로 .....	12
<그림 4-1> 연구모형 .....	27
<그림 4-2> 중국진출 한국수산기업의 후속투자 결정요인 .....	39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Korean Fisheries Firms' Sequential FDI in China**

Chun Feng Zhang

*Department of Marine Business and Economic,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In 1970, direct overseas investment in Korean fisheries started to sell the frozen marine products to Singapore with establishing local subsidiary. And this direct overseas investment has increased, due to the proclamation of the 200 miles Exclusive Economic Zones (EEZ) by neighboring countries.

Direct overseas investment is unavoidable policy in Korea to acquire fisheries resources. In the future, it will develop various kinds of direct overseas investment.

Direct overseas investment in China has carried out since Korea and China established diplomat relationship in 1992. The former day, the Korea invested indirectly in China via Hong Kong. It has reported that 253 local subsidiaries applied to China government permit at the end of 2004.

Under the these background, we are going to study about Korea fishery companies which established local subsidiary in China. The study will be aimed at estimating the alternative possibility strategy, management rule of Korean fishery company extending its business to China by looking into the factor of business, the factor of cost, the market risk, and the factor of infrastructure.

The results will make a decision on whether to invest continuously

The results of actual proof analysis has announced that a successful investment of fishery company is mainly influenced in its own government policy. Many advantages of tax and administration for foreign company in China have been changed and vanished comparing to the beginning time

of entering china.

So, it is imperative for Korean government to take measures to changing policy of Chinese government.

The early days, investment of fishery company is type of resources and abundant resources will affect succeeding investment.

Nowadays, the type of the investment is the production oriented investment. And then many direct investment linked the production oriented investment have been conducted in many area in China. So, the production oriented investment will affect logistics and successful investment in China. And, The factor of Market potential in Market Factors in the middle of changing market oriented investment will conclude whether to invest.

As the china exchange system changed from the fixed exchange system to the fluctuating exchange system. Risk of exchange rate will affect corporate's parent business.

The local risk (regulation of import and export , remittance) will affect succeeding investment of corporate's parent

Consequently, The Sequential FDI of korean fishery company in china is influenced by the government policy , labor cost, logistics cost, market potential cost, local subsidiary, achievement, local risk and exchange rate risk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 수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주)水産開發公社가 1970년 싱가포르에 냉동수산물의 국외판매를 목적으로 현지법인을 설립, 자본금 3,371,000불을 90%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발하였다. 이후 수산업의 해외투자는 1977년부터 시작한 각국 정부의 200해리 선포와 더불어 자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수산정책이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유형으로써 해외투자가 유발할 것이다.<sup>1)</sup> 수산업의 해외합작회사는 9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어업부문에 모두 치우쳐 있었으나 최근에는 양식업, 수산물 가공업 또는 수산물 유통업 부문에서도 대외 합작·합자투자 또는 단독투자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1993년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 칠레,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중국, 인도네시아 등 14개국에 52개의 수산합작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그 중 한국과 중국의 수산물 교역이 활발해 지면서 중국에 해외현지법인 신고건수만 해도 253건(2004.12)에 달한다. 한국과 중국이 정식 국교체결하기 전 즉 1992년 이전에는 중국에 대한 투자를 홍콩을 통한 우회투자방식을 취하였으나 국교체결을 계기로 수산업 및 수산관련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한국에 금융위기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대중국 투자 건수가 다소 감소하였지만 그 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중 수산물 교역의 활발함과 대중국 진출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관련 연구에 비해 수산업 및 수산관련 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연구는 아주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기존 해외직접투자 연구는 투자동기, 진입방식, 진입시기 및 수익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연구 되었지만 투자한 후 모기

---

1) 정윤모.(1987)

2) 최정윤. (2003)

업이 기업성장전략 즉 후속투자, 철수 및 현상유지의 의사결정에 영향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도 적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한국수산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런 기업들이 성장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기업요인, 비용요인, 시장요인, 리스크요인, 인프라요인으로 세분화하여 규명함으로써 중국 진출 수산기업의 경영행동과 선택 가능전략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1991년과 2004년 사이에 중국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한국수산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투자대상 기업들의 선정은 재정경제부 해외직접투자 인포넷의 해외직접투자현지법인 현황을 통하여 신고한 기업 중에서 수산물을 취급하는 기업들을 채택하였다. 그 중에서도 수산가공업, 수산물유통·무역업을 취급하는 수산기업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그 모집단에서 표본집단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통해 얻은 자료와 재정경제부, 대한무역진흥공사 등에서 발간한 자료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필요한 변수들의 측정을 위하여 수집한 2차 자료를 병행 분석하여 모기업들의 후속투자전략 수립과정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을 추정·검정하고자 한다.

추정방법은 우선 각 요인을 형성하는 변수들 간의 신뢰성을 파악하고 요인과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의사결정에 영향 주는 변수들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기로 한다.

## 제 2 장 선 행 연 구

### 제 1 절 후속투자 개념에 관한 고찰

후속투자(Sequential FDI)의 개념은 해외직접투자 이론에 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Johanson & Vahlne(1977)은 후속투자를 최초투자에 대한 새로운 해외투자와 다른 새로운 국가에 대한 해외투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Newbould, Buckley & Thurwell(1978)은 43개의 소규모 영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를 통해 기업이 처음으로 해외에 투자한 경우를 최초투자, 이어서 다른 국가에 대해 실시한 해외투자를 후속투자라고 정의하였다.

Davidson(1980)은 하버드 대학의 다국적기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국의 180개 기업이 1945년부터 1976년까지 수행한 7,000여건 이상의 제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중 약 29%가 최초투자국에 대한 후속투자임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후속투자는 초기투자의 학습효과에 따라 독립적으로 전개되는 투자로 제시하였다. Kogut(1983)는 미 상무성 자료를 통한 실증 연구를 통해 최초투자에 의해 설립된 해외자회사에 의해 대부분의 후속투자가 실시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후속투자는 기업의 최초해외투자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일종의 순차적인 과정이라고 인식하였다.

Dunning(1983)은 후속투자를 ① 최초투자국에서 다른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새로운 투자, ② 최초투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초기투자시와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투자, ③ 경쟁기업이나 기업고객(공급업체 등)을 따르는 투자 등 세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Chang(1995)은 일본의 전자 기업들의 미국에 직접투자를 시행함에 있어 초기에는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핵심 사업이나 경쟁우위가 있는 사업 분야부터 직접투자를 시행하고, 경험을 통해 현지시장

에서 새로운 지식과 루틴을 개발하면서 이를 후속투자로 연결하게 되는 순차적 진입방식을 제시하였다. Barkema, Bell and Pennings(1996)는 13개의 네덜란드 기업의 해외투자를 실증분석하며, 후속투자는 초기투자의 학습효과에 따라 초기투자과 독립적으로 전개되는 투자로 정의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김익수·한병섭(2000)은 한국조립금속업체들의 대중 후속투자요인을 분석하면서 후속투자를 최초투자국에 대한 독립적인 해외투자 및 반복투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강태구(2002)는 한국전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후속투자를 최초투자국에 대한 또 하나의 독립적인 해외투자 또는 최초투자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새로운 해외투자로 정의하였다.

서동혁(2004)은 한국제조업체들의 중국에 대한 초기 및 후속투자 진입 방식 결정요인 분석하면서 기업의 국제화 과정에서 행해지는 특정시장에 대한 대부분의 해외진출을 초기투자자로 보았다. 후속투자는 이미 진출한 동일 해외시장에서 후속사업을 전개할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투자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후속투자의 개념은 초기투자에 대한 모기업의 추가적 지분확대, 초기 자회사의 현지 재투자, 초기투자국에서 추가사업을 위한 자회사 설립 등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초기투자를 경험으로 다른 나라에 추가로 진출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할 것이다.

후속투자에 대한 견해는 대체로 두 가지로 설명된다. 하나는 후속투자가 최초의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로 규정한다는 점이다(Chang 1995; Kogut 1983; Kogut and Kulatilaka 1994). 특정국가에서 이루어진 선행적인 투자에 대해 사업 확장이나 신규 사업 전개 등을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자원을 투입하는 추가투자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초기의 투자가 성공할 경우 이를 다른 국가로 확산하거나 동일 투자대상국이라 할지라도 초기투자의 학습효과에 따라 초기투자과 독립적으로 전개하는 투자를 의미한다(Barkema, Bell and Pennings 1996; Davidson 1980; 김익수·한병섭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언급한 후속투자의 개념은 특정국가에서 이루어진 선행적인 투자에 대해 사업 확장이나 신규 사업 전개 등을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자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 제 2 절 후속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고찰

Johanson and Vahlne(1977)는 해외투자에 대해 기업이 특정국에서의 개입 정도를 확대하는 과정이며 한편으로는 기존의 사업활동을 새로운 특정국에 확장해나가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해외투자에서 현지시장에 대한 경험과 이로 인한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지식이란 현지국의 사업환경이나 문화적 패턴, 시장체제, 그리고 개별 고객기업등에 대한 지식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험적 지식이 좋을수록 지식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며 시장에서의 자원개입 정도도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험을 통한 지식의 축적이 많을수록 후속투자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Davidson(1980)은 기업의 국제화 경험과 해외생산활동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지시장에서 사업경험을 가진 기업은 그 국가를 후속투자의 대상지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분석에서 미국기업들이 일정기간 수행한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중 약 29%가 최초투자에 대한 후속투자였음을 밝혔다. 아울러 국제화 경험이 많은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지리적, 심리적으로 거리가 더 먼 국가에도 쉽게 후속투자를 수행한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Kogut(1983)는 추가적인 해외투자의 상당부분이 이미 수행중인 해외사업에 투입된다고 주장하여 후속투자가 앞서 이루어진 선행적 투자의 연장선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다국적기업들은 후속투자시 다음 세가지 사항들을 누리기 위해 자사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해외시장의 제도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둘째, 국제사업 활동을 통해 입수한 정보의 외부성, 셋째, 생산 및 마케팅

활동에서 공동생산의 경제성 등이다.

Barkema, Bell, and Pennings(1996)는 네덜란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해외투자에서 후속투자 발생가능성은 학습효과로 인해 현지국 시장에 대한 초기투자 경험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현지국에서의 학습은 불확실성 제거, 현지정보의 축적, 경험 등이 작용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후속투자를 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Shama(2000)는 미국기업이 동유럽에 투자한 사례를 분석하여 처음 투자한 기업들의 진입방식은 단독투자 비율이 전체대상기업의 17%였으나 후속투자에서는 41%로 크게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그 배경으로는 현지국 진출 후에 현지국에서의 경험으로 위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더불어 성과가 나타나면서 기업들이 자원투입을 확대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김익수·한병섭(2000)에서는 중국을 대상으로 진출한 한국기업의 후속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기업의 국제적 경험, 자회사의 현지국 경험, 대기업계열 여부, 진입방식 등의 변수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업의 국제활동이 풍부하고 자회사의 현지시장 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대기업에 속할수록 모기업과 여타 계열사의 국제활동 경험과 지식 등의 활용가능성이 높으므로 후속투자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태구(2002)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후속투자를 더 많이 수행하는 기업의 규모, 자산의 특유성, 지식집약도, 문화적 거리, 해외투자 경험, 현지국 투자 경험 등이 후속투자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 제 3 장 한국 수산업의 대중국 교역 및 투자 현황

#### 제 1 절 한·중 수산물 교역 현황

##### 1. 한국의 수산물 교역 실태

한·중 수산물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수산물 총수출에서 대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6.3%에서 2005년 9.1%까지 증가하였다. 반면 한국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은 물론 2000년 이전부터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는데, 2000년 4억 9천만 달러로 한국 총수산물수입의 3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2005년 9억 4천만 달러, 총수입의 39.3%를 점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10%의 증가 추세로 확대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단계에 있어 한중 수산물교역구조는 한국에 있어 중국은 수산물수입에 있어서는 최대대상국으로 위치하고 있으나, 양국 간의 수산물 교역은 한국의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구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1> 한국의 수산물 교역 실태

(단위 : 천 달러,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 증감율 (’01/’05)	
전체	수 출	1,504,470	1,273,619	1,160,435	1,129,385	1,278,638	1,193,117	-1.6%
	수 입	1,410,598	1,648,372	1,884,417	1,961,145	2,261,356	2,383,574	9.7%
	무역수지	93,872	-374,753	-723,982	-831,760	-982,718	-1,190,457	33.5%
중국	수 출 (5.6%)	55,709 (4.4%)	48,345 (4.2%)	70,769 (6.3%)	124,102 (9.7%)	108,031 (9.1%)		18.0%
	수 입	486,841	634,449	719,314	713,538	909,536	936,351	10.2%

	(34.5%)	(38.5%)	(38.2%)	(36.4%)	(40.2%)	(39.3%)	
무역수지	-402,751	-578,740	-670,969	-642,769	-785,434	-828,320	9.4%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물통계연보

주 : ( )안은 세계 수산물 수출액, 수입액에 대한 중국 수산물의 수출액과 수입액 비중을 나타냄

## 2. 한·중 수산물 교역 집중도 분석

### 1) 수입수산물 교역 집중도 분석(상위 10위 품목)

한국에 반입되는 중국 수산물 중 HS 코드별로 상위 10위 이내의 품목(2005년도 수입금액 실적을 기준)을 동일 HS 코드의 총수입액에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표 3-2> 한국의 총수입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HS 코드	품 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0303-79-6000	조기(냉동)	99.54	99.77	99.75	94.28	99.59	99.71
0307-59-1020	낙지(냉동)	86.89	92.65	87.00	84.74	84.13	84.12
0303-79-3000	갈치(냉동)	75.38	68.08	80.87	70.97	65.15	67.92
0306-14-3000	꽃게(냉동)	27.61	65.09	67.44	65.72	75.02	78.99
1604-30-2000	캐비아대용물	6.53	26.91	46.53	47.17	82.92	77.83
0307-51-0000	문어(산것/신선냉장)	92.33	93.52	93.27	92.96	98.22	97.28
0303-79-9091	아귀(냉동)	28.51	28.22	26.61	29.63	45.46	49.20
0306-13-1000	새우살(새우와 보리새우(냉동))	45.47	46.12	48.60	48.92	51.07	51.15
0304-20-1000	명태피레트(냉동)	96.81	96.57	97.46	93.95	94.66	93.62
0304-90-1090	기타연육(냉동)	12.34	8.52	16.14	17.39	28.22	25.88

주 : 1) 상위품목은 2005년 중국으로부터의 수산물수입금액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상위 10위까지의 품목임.

2) 집중도 비중 = A품목 중국 수입액 / A품목 우리나라 총수입액

자료 : 수산물수출입정보시스템(<https://trade.suhyup.co.kr/>)

2005년 금액 기준 대중국 수입 수산물의 상위 10위 품목은 조기(냉동), 낙지(냉동), 갈치(냉동), 꽃게(냉동), 캐비아대용물, 문어(산것/신선냉장), 아귀(냉동), 새우살(냉동), 명태피레트(냉동), 기타 연육(냉동), 순으로 수입되고 있다.

상위 10위 품목중에서 중국 집중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조기(냉동), 문어(산것/신선냉장), 명태피레트(냉동), 새우와 보리새우(건조)이다. 이들 품목은 해당 어종의 활어, 신선 냉장품, 냉동품, 가공품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수입되면서 한국 시장 내에서 90% 이상의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집중도가 60% 미만인 품목은 아귀(냉동) 49.20%, 새우살(새우와 보리새우 냉동) 51.15% 등이 해당하고 있다. 이런 품목들도 국내 수산물 시장에 있어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3> 한국의 총수입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HS 코드	품 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0303-79-6000	조기(냉동)	99.62	99.68	99.64	92.74	99.44	99.72
0307-59-1020	낙지(냉동)	86.84	92.72	86.99	86.05	84.87	84.84
0303-79-3000	갈치(냉동)	60.20	49.33	65.60	52.04	48.31	52.61
0306-14-3000	꽃게(냉동)	23.10	60.01	59.18	59.07	63.89	70.84
1604-30-2000	캐비아대용물	6.49	18.60	29.48	38.49	74.76	65.06
0307-51-0000	문어 (산것/신선냉장)	97.17	95.63	95.26	96.48	99.07	98.92
0303-79-9091	아귀(냉동)	40.43	44.57	44.22	53.92	65.70	74.70
0306-13-1000	새우살(새우와 보리새우(냉동))	54.82	56.58	67.68	64.81	67.64	68.41
0304-20-1000	명태피레트(냉동)	98.69	97.59	97.63	93.72	94.81	94.95
0304-90-1090	기타연육(냉동)	17.13	10.85	21.70	22.56	32.83	34.37

주 : 1) 상위품목은 2005년 중국으로부터의 수산물수입금액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상위 10위까지의 품목임.

2) 집중도 비중 = A품목 중국 수입액 / A품목 우리나라 총수입액

자료 : 수산물수출입정보시스템(<https://trade.suhyup.co.kr/>)

<표 3-3>은 <표 3-2>의 품목에 대한 수입량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입량 대비 중국수산물 수입량 비중을 분석한 것이다. <표 3-3>에서도 <표 3-2>와 마찬가지로 중국 수산물의 국내수입점유율이 100%에서 가장 낮은 기타 연육(냉동)을 제외하고는 40% 이상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 2) 수출수산물 교역 집중도 분석(상위 10위 품목)

<표 3-4>는 품목별 우리나라 수산물 총수출에 있어 대중국 수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주요 품목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수산물 중 상위 10위 이내에 있는 품목만을 정리한 것이다.

<표 3-4> 한국의 총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5 HS 코드	품 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0307-49-1020	오징어(냉동)	58.48	42.43	31.38	22.96	36.69	34.54
0303-80-2010	명란(냉동/피레트, 어육제외)	0.04	0.60	3.32	42.97	86.47	81.09
0303-79-9080	새꼬리민태(냉동)	9.00	57.86	27.05	31.17	62.53	54.62
0303-60-0000	대구(냉동)	54.88	55.89	54.16	38.99	59.63	99.01
0303-79-1000	명태(냉동)	6.98	72.61	75.37	80.10	80.92	80.38
0307-99-1190	기타연체동물(냉동)	19.93	43.65	50.63	54.26	50.49	38.03
0307-49-1010	갑오징어(냉동)	61.18	19.50	41.59	65.35	68.69	62.14
0303-74-0000	고등어(냉동)	1.34	3.97	1.38	8.58	12.76	28.17
0303-79-9010	삼치(냉동)	0.67		5.21	26.92	8.86	33.32
0304-20-9000	기타어류피레트(냉동)	0.92	1.30	0.34	0.64	6.60	4.79

주 : 1) 상위품목은 2005년 중국으로 수출된 수산물수출금액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상위 10위까지의 품목임.

2) 집중도 비중 = A품목 중국 수출액 / A품목 우리나라 총수출액

자료 : 수산물수출입정보시스템(<https://trade.suhyup.co.kr/>)

<표 3-4>에서 알 수 있다시피 2005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국 집중도가 90% 이상인 품목인 대구(냉동) 99.0% 만이 올라와 있는데, 이 품목은 2005년 이전에는 60% 이하의 수준이었는데 2005년에 99.01%로 급증하였다. 이 품목의 수출은 중국 국내소비시장용이 아닌 가공원료용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중국 내 가공공장에서 가공된 후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비율이 높다. 물론 제3국으로 수출되기도 한다.

반면, 중국 집중도가 60% 미만인 품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오징어(냉동) 34.54%, 기타 연체동물(냉동) 38.03%, 고등어(냉동) 28.17%, 삼치(냉동) 33.32% 등이 속하고 있다. 비록 이들 품목의 대중국 수출이 60% 미만이지만 앞의 높은 집중도를 보인 가공원료용 수출 품목과는 달리 중국 국내소비시장을 위해 수출되는 품목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3-5> 한국의 총수출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HS 코드	품 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0307-49-1020	오징어(냉동)	62.36	49.19	31.31	25.17	38.64	35.84
0303-80-2010	명란(냉동/피레트, 어육제외)	0.03	0.56	6.41	38.67	84.92	65.13
0303-79-9080	새꼬리민태(냉동)	7.81	53.27	27.06	28.97	58.75	52.19
0303-60-0000	대구(냉동)	63.61	60.00	62.84	51.14	62.14	99.29
0303-79-1000	명태(냉동)	21.13	87.59	85.12	85.60	87.81	86.10
0307-99-1190	기타연체동물(냉동)	25.66	59.39	60.01	63.74	71.11	51.61
0307-49-1010	갑오징어(냉동)	50.20	16.33	51.23	77.69	66.24	50.44
0303-74-0000	고등어(냉동)	0.54	3.50	1.90	12.64	17.91	30.31
0303-79-9010	삼치(냉동)	0.60		10.55	41.60	25.06	46.43
0304-20-9000	기타어류피레트(냉동)	1.43	1.46	0.86	0.99	6.51	6.08

주 : 1) 상위품목은 2005년 중국으로 수출된 수산물수출금액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상위 10위까지의 품목임.

2) 집중도 비중 = A품목 중국 수출액 / A품목 우리나라 총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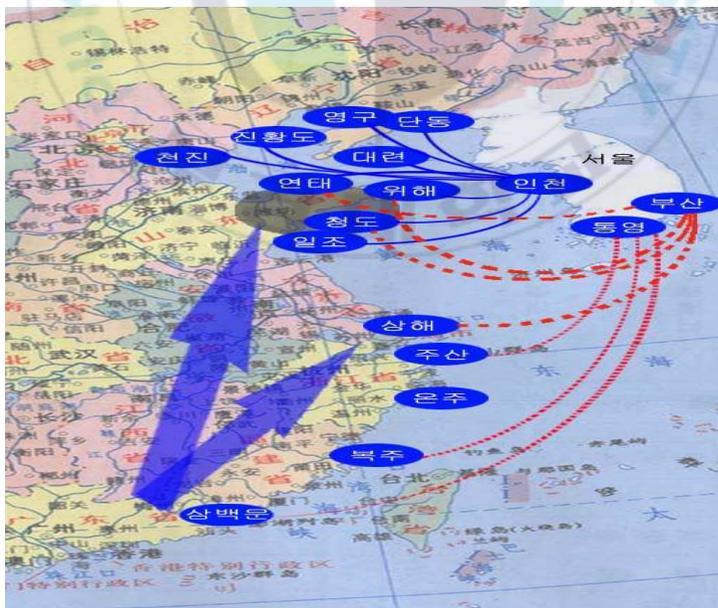
자료 : 수산물수출입정보시스템(<https://trade.suhyup.co.kr/>)

<표 3-5>는 <표 3-4>의 품목에 대한 수출량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량 대비 대중국 수산물 수출량 비중을 분석한 것이다. <표 3-5>에서도 <표 3-4>와 마찬가지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원료용 수출과 60% 미만의 낮은 비율이지만 중국 국내소비시장용 수출 품목으로 대별되어 지고 있다.

### 3. 중국 수산물의 교역 경로

한국에 수입되는 중국 수산물은 아주 다양한 상품 형태를 가지고 반입되고 있다. 여기서는 물류 경로의 차이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대중국 교역 물류는 ①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신선 냉장 수산물과 활낙지 등과 같이 살아있는 연체동물, 활패류의 교역 물류 ② 통영을 중심으로 하는 활어 교역 물류 ③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냉동, 가공 수산물의 교역 물류로 크게 3대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림 3-1> 중국 수산물의 교역 경로

## 1) 중국 신선 냉장 수산물의 교역 경로

중국의 단둥(丹東Dandong), 룡커우(龍口Longkou), 친황다오(秦皇島Qinhuangdao), 다롄(大連Dalian), 텐진(天津Tianjin), 옌타이(煙台Yantai), 웨하이(威海Weihai), 칭다오(青島Qingdao), 르자오(日照Rizhao)를 중심으로 생산된 신선 냉장 수산물과 활패류, 연체동물이 인천을 통해서 수입되고 있다.

랴오닝성(遼寧省) 다롄(大連Dalian), 단둥(丹東Dandong) 지역에서는 꽃게, 낙지, 복어 등의 수산물이 생산되고, 옌타이(煙台Yantai), 웨하이(威海Weihai)는 낙지, 아귀, 조기, 패류 등이 그리고 산둥성(山東省) 칭다오(青島Qingdao)에서는 가공품(명태, 가자미, 대구 등), 옌타이(煙台Yantai)에서는 낙지, 조기 등이 생산되고 있다. 한편 중국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상하이(上海Shanghai), 저우산(舟山Zhoushan), 윈저우(溫州Wenzhou), 셴푸(石浦Shipu)에서는 꽃게, 조기, 새우, 낙지, 아귀 등의 냉동품, 영덕, 푸저우(福州Fuzhou)에서는 양식, 부세, 민어, 돔 등이 주로 생산되어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우선 산지 업자(주로 산지수집상 겸 수출업자, 가공업자)에 의해 원어 형태로 구매된 다음 수산물가공공장으로 반입되고 이후 다시 선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한국 시장 상황(공급량, 거래가격 등)에 따라 신선 냉장 형태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어종별·사이즈별로 선별한 다음 스티로폴 박스에 제빙하는 등 채포장된 다음 Dry 컨테이너 박스에 넣는다. 이러한 컨테이너 박스는 인천항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페리여객선의 화물로서 선적한 뒤 교역되는 물류경로를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중국 직접투자 한국기업은 수출업자 혹은 가공업자로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신선 냉장 형태로 한국으로 수출한다. 이러한 신선 냉장 수산물은 선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선이 운항하는 항구 즉 텐진(天津Tianjin), 다롄(大連Dalian), 단둥(丹東Dandong), 룡

커우(龍口Longkou), 칭다오(青島Qingdao), 웨하이(威海Weihai), 옌타이(煙台Yantai), 석도 등 지역에 진출하여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페리여객선으로 한국에 신선 냉장 수산물을 반입되고 있다. 이런 경우, 한국기업은 거의 독자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품질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한국기업은 중국 현지 파트너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독자 형태를 취하는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 표는 한국과 중국 간의 페리 여객선의 항로 및 출발일시, 거리를 정리한 것인데, 현재 12개 항로가 개설되어 운항되고 있고, 이 중에서 9개 노선이 인천 노선이다.



<표 3-6> 한중 페리 여객선 운항 현황

항 로	한국 출발	중국 출발	거 리
인천 - 텐진	화 13:00-12:00+ 1	일.목	460마일
	금 19:00-18:00+ 1	11:00-12:00+ 1	
인천 - 다롄	수.토	화. 금	292마일
	18:30-12:00+ 1	12:00-08:00+ 1	
인천 - 단둥	월. 수. 금	화. 목. 일	284마일
	18:00-09:00+ 1	15:00-08:00+ 1	
인천 - 영구	월 19:00-19:00+ 1	목. 일	420마일
	금 12:00-12:00+ 1	12:00-12:00+ 1	
인천 - 칭황다오	월 19:00-17:00+ 1	월. 수	405마일
	일 12:00-11:00+ 1	15:00-08:00+ 1	
인천 - 칭다오	수. 토	월. 목	338마일
	13:00-09:00+ 1	18:00-15:30+ 1	
	월. 목	화. 금	
인천 - 웨하이	13:00-09:00+ 1	18:00-15:30+ 1	238마일
	화. 목. 토	일. 수. 금	
인천 - 옌타이	19:00-09:00+ 1	18:00-09:00+ 1	282마일
	화. 목. 토	월. 수. 금	
인천 - 석도	18:00-09:00+ 1	17:00-09:00+ 1	220마일
	월. 수. 금	일. 화. 목	
평택 - 영성	18:00-08:00+ 1	18:00-08:00+ 1	210마일
	월. 수. 토	화. 목. 일	
평택 - 르자오	18:00-08:00+ 1	18:00-09:00+ 1	372마일
	일. 수. 금	화. 목. 토	
속초 - 훈춘	월. 목	수. 토	316마일
	17:00-12:00+ 1	09:00-07:00+ 1	

2) 중국 활어의 교역 경로

중국의 저우산(舟山Zhoushan), 푸저우(福州Fuzhou), 산바이먼(三百門 Sanbaimen)을 중심으로 생산된 활어가 통영에 수입되고 있다. 저우산(舟山Zhoushan)에서는 농어, 민어가 주로 양식 생산되고, 푸젠성(福建省 Fujiansheng) 영덕에서는 참돔, 민어, 농어, 감성돔 등이, 산바이먼(三百門

Sanbaimen)에서는 민어, 돌돔, 병어, 방어, 능성어, 농어 등이 양식 생산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양식 생산되는 수산물은 우선 현지 수출업자와 한국 수입업자 간에 시장 정보를 교환하고 적정 물량, 가격을 교섭한 후 활어 운반선에 선적되어 운송되는 경로를 가지게 된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은 물론이지만 부정기선적 운송이라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운반선 전체를 용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운반선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1회 활어 교역 운송 시에 필요한 최소 물량은 평균은 25~40톤 사이에 이르고 있다.

한편 통영항으로 반입되는 중국 활어 이외에도 앞의 인천 페리 여객선의 화물로서 반입되는 양도 상당하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중국 칭다오, 웨하이, 옌타이 이북 지역의 활어 및 활연체동물(활낙지, 활문어 등), 활패류 등으로 활어운반선에 의한 전문 활어 수입보다는 스티로폴 용기에 넣은 다음 Dry 컨테이너에 선적한 후 신선 냉장 수산물과 동일한 조건으로 반입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판매 경로 역시 신선 냉장 수산물 유통 경로의 연장선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중국 활어는 어류 양식 주산지인 남부 지역의 저우산, 푸저우, 산바이먼 지역에 한중 정기선 페리가 없는 까닭에 부정기선의 활어 전용 운반선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항해 거리가 비교적 짧은 통영 지역을 통해 교역 물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로 중국 현지인이 한국 수입업자에게 직접 수출하기 때문에 직접투자한 한국기업은 거의 없다. 한편, 활어 주산지가 아니지만 활어 이외에도 통영항으로 반입되는 중국 수산물이 인천 페리 여객선의 화물로서 반입되는 양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페리여객선이 있는 항구도시 칭다오, 웨하이, 옌타이 등 지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이 많다. 이런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독자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 3) 중국 냉동·가공 수산물의 교역 경로

중국 냉동수산물과 가공수산물의 교역 경로는 기본적으로 일반적 상품 교역 경로와 동일하다. 다시 말해 일반 화물 운반선에 의한 컨테이너 운송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

중국 냉동·가공 수산물 수입은 주로 부산을 통해 수입되고 있는데 이는 2006년 현재 한중 개설 항로는 총 68개 노선이고 이중 부산을 기점(출발/도착항)으로 하는 항로가 54개 노선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물류 조건이 그 배경에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냉동·가공 수산물은 비교적 해안 지역을 가진 곳이라면 거의 대부분 가공 생산되고 있지만 그 중심이 되는 곳이 중국 북부 지역의 칭다오, 웨하이, 옌타이, 다롄, 단둥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지역에는 한국 자본이 진출하고 있는 가공공장이 많이 존재한다. 이들 진출한 한국기업은 합자, 합작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중국 현지 파트너로부터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를 빨리 획득할 수 있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으며 판매권을 먼저 갖는데 유리롭기 때문에 독자기업보다 합자, 합작기업의 형태를 더 선호한다. 그리고 중국 조선족이 언어 장벽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한편, 중국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산물 생산 가공품은 육로 운송을 통해 수출물류기지로 이동한 후 한국으로 해상 운송되는 경우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수출물류기지로서는 남부 지역으로부터 생산 가공된 수산물은 육로 운송을 통해 상하이에 집결되고, 북부 지역은 텐진, 다롄, 칭다오에 집결되어 컨테이너선을 통해 부산에 반입되는 것이 주경로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기업의 개입도 적지 않다. 전에는 한국기업들은 수입업자로서 단순히 중국 수출업자에 의해 수산물을 수입했는데 즉 수출입 무역을 주 업무로 해왔지만 지금은 한국수산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회사에서

한국 수출용 수산물 가공품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반입하거나 중국 현지에서 원재료를 조달하여 한국에 수출하는 기업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중국 진출한 수산기업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의 기업은 중국 현지에서 원료를 수집하여 한국 국내에 수출하는 기업들이다. 이런 기업들의 투자동기를 보면 원료지향형 투자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주로 독자기업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신선 냉장 수산물과 활낙지 등 살아있는 연체동물이 주로 여기 해당되는데, 수입상품으로서 신선 냉장 수산물과 활낙지 등 살아있는 연체동물은 위생 및 품질관리가 철저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측 투자자가 직접 위생 및 품질관리를 하기 위하여 독자기업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신선 냉장 수산물과 활어부분 진출기업은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합자, 합작 형태에 대한 분쟁 및 조정의 어려움으로 독자기업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중국 현지에서 원료를 가공하여 한국에 반입하여 국내에서 재가공한 후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와 바로 중국 현지에서 가공한 후 한국에 가공품을 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후자의 경우가 많다. 이런 기업들의 투자동기를 보면 원료지향형과 가공지향형이고 주로 합작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의 기업들은 주로 중국 현지에서 원료를 조달하여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중국 현지의 가공시설과 저가 노동력을 이용하여 원료를 가공한 후 제3국에 수출하는 한국기업들이다. 주로 가공지향형 투자동기로 진출하여 독자기업의 형태를 취하는 기업이 거의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러시아산 명태, 가자미, 대구 등 냉동품을 수입하여 가공한 후 제3국 즉 미국, 유럽 등 지역에 수출하는 기업이다.

## 제 2 절 대중국 해외현지법인 현황 및 사례분석

### 1. 대중국 해외현지법인 현황

한·중 수교이후 중국은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최대 대상국으로 부상되었다. 중국의 노동력, 원재료 자원 확보, 제3국으로의 우회수출 등의 투자동기로 진출하고 있다. 1997년 IMF 금융위기 때문에 투자건수와 금액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2000년 중국은 오랜 협상 끝에 WTO에 가입하였고 한국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복기에 진입함으로써 중국 진출 기업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초기에는 자금능력이나 경영노하우가 풍부한 대규모 기업들이 대중국 진출을 많이 했는데 현재는 중소기업도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표 3-7>과 <표 3-8>은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3000여개 회사중에서 수산물을 취급하는 현지법인만을 선정하여 정리한 것이다. 투자 업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현지법인현황에 등록된 업종을 수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업종 명칭으로 다시 세분화하였다. 다시 말해 제조업, 유통업, 농림어업을 수산가공업, 유통/무역업, 어업/양식업으로 세분화하였다.

<표 3-7> 한국의 대중국 수산 투자 유형 및 분포

단위: 건

국가명	수산가공업	유통/무역업	어업/양식업	합계
중국베이징시	5		1	6
중국장수성	7		11	18
중국장시성	1			1
중국지린성	4		3	7
중국푸젠성	2		1	3

중국산둥성	90	17	38	145
중국랴오닝성	24	1	14	39
중국쩌장성	8	3	4	15
중국상하이시			2	2
중국하이난성			2	2
중국허베이성	1	1	1	3
중국톈진시	2	2		4
중국헤이룽장성	4	2	2	8
합계	148	26	79	253

자료: 재정경제부 해외직접투자 인포넷 해외현지법인현황

대중국 진출 수산기업은 산둥성(山東省)의 투자건수가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과 상대적으로 가깝고 교역이 활발한 산둥성(山東省)에 현지법인을 많이 설립하였고 수산물가공업과 어업·양식업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다. 두 번째로 많이 진출한 지역이 랴오닝성(遼寧省)인데, 그 중에서도 다롄(大連)에 집중되어 있다. 어업·양식업은 주로 장수성(江蘇省), 산둥성(山東省), 랴오닝성(遼寧省) 등 어업자원이 풍부하고 양식기술이 상대적으로 발달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수산물가공업은 가공 능력과 창고보관능력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고 한국과 정기선이 운항하는 항구도시인 산둥성(山東省), 랴오닝성(遼寧省)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표 3-8> 한국의 대중국 수산 투자 규모 및 분포

단위: 천불

국가명	신고금액	투자금액	투자잔액
중국베이징시	17,546	14,907	14,907
중국장수성	6,228	2,503	2,503
중국장시성	500	33	33
중국지린성	1,446	620	620
중국푸젠성	583	150	150
중국산둥성	47,106	27,701	26,612
중국랴오닝성	8,265	4,202	4,202
중국쩌장성	4,812	3,740	3,740
중국상하이시	447	447	447
중국하이난성	500	303	303
중국허베이성	415	274	274
중국톈진시	910	90	90
중국헤이룽장성	596	225	225
합계	89,354	55,195	54,106

자료: 재정경제부 해외직접투자 인포넷 해외현지법인현황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중국 해외현지법인 투자 유형은 주로 제조업적 성격을 지닌 수산가공업이고 산둥성(山東省)의 투자집중도가 제일 높다. 금액기준으로 볼 때 산둥성(山東省)에 제일 많이 투자하였고 다음으로 베이징시(北京市)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베이징시(北京市)의 경우는 투자 건수는 6건에 지나지 않으나 투자금액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규모가 있는 수산가공업 투자가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상하이시(上海市)도 투자건수는 2건에 불과하지만 투자 금액을 보면 적은 편은 아니다. 그것은 상하이시(上海市)에는 주로 고부가 가치가 있는 자라양식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사례분석

### 1) 중국현지 원료를 중심으로 가공한 후 주로 한국 국내에 반입하는 기업

이 업체는 주로 중국산 원료를 중국현지법인 공장에서 가공한 후 일본과 한국에 수출한다. 주력시장은 주로 한국과 일본인데, 한국으로는 신선냉장, 냉동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매출액의 95%를 차지하고, 일본으로는 아귀, 아귀간을 다른 업체에 위탁가공한 후 수출하고 있는데 매출액의 5%를 차지한다. 전에는 중국 현지에서 원료를 많이 조달하였는데 한국, 일본 등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하여 중국 현지의 자원이 많이 감소하여 원료조달이 전보다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료 값도 많이 인상된 상태이다. 예를 들면, 현지에서 중국산 낙지의 경우 이전에는 가격이 키로당 6위엔이었던것이 지금은 키로당 29위엔으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거리상에서도 가깝고 통신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양국 간의 정보교환이 점점 빨라져 한국과 중국 시장에서의 동일 수산물 가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꽃게의 경우는 중국 시장 내 가격이 한국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중국에서는 대중어종으로서 참조기, 갈치 등 품종을 많이 소비하고 있어 이들 어종의 현지가격은 점점 상승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할 때 한국 내의 관능검사가 있다. 중국현지 진출 수출업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관능검사에서 통과 못할 경우 6개월 수출 중단이면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로 인해 시장조건에 큰 차이가 없으면 한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업체도 투자초기에는 정부에서 세금혜택을 받았지만 지금은 다 폐지되어 중국 국내기업

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쟁하고 있다.

<표 3-9> A사 현지법인현황

진출연도	1998년
진출방식	합자회사
현지법인 연간매출액	400만\$
현지법인 종업원수	50~70명(전부 현지인)
현지법인 주력시장	한국, 일본
현지법인 원료원산지	러시아, 중국

2) 수입원료를 중국현지에서 가공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A사인 경우는 러시아와 미국의 원료를 수입하여 중국 가공공장에서 가공하여 유럽, 미국 및 일본에 수출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수산기업의 진출방식은 단독투자, 합작·합자투자, 임대 및 임가공방식이 있는데 이 업체는 임가공방식으로 진출한 회사이다. 임가공방식은 리스크가 제일 낮은 진출방식이라 할 수 있다. 임대방식은 주로 처리장을 임대하여 가공하는 것을 말하고 이런 방식은 한국에 반드시 모기업이 있다. 이 업체는 주로 미국과 러시아의 원료를 수입하여 중국에서 가공한 후 유럽, 미국, 일본에 수출한다. 가공품목은 가자미, 연어, 대구, 명태 등이고 그중에서 가자미원료는 80%가 미국에서 수입한 것이고 가공처리된 가자미 수출시장은 미국(60%), 유럽(30%), 일본(10%) 순이다.

이 업체의 진출연도는 2003년으로서 중국정부에서는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세금혜택 즉 2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3년간 법인세의 절반을 면제하는 혜택을 주었지만 2007년부터는 이러한 혜택이 없어져 중국 국내기업과 똑같아 졌다. 그리고 중국의 수도세, 전기세, 폐수처리비용 등 비용이 많이 인상된 상태이고 임금비용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중국

의 최저임금률도 해마다 빠른 속도로 인상하고 있다. 최저임금수준이 1인당 월급 125\$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150\$로 증가하였으며 중국 현지에서도 3D 기피현상이 나타나 일반노동력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가공 포를 뜨는 작업은 숙련도가 수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숙련노동력이 필요하는데 이러한 숙련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임금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표 3-10> B사 현지법인 현황

진출연도	2003년
진출방식	임가공
현지법인 종업원수	약 150명
현지법인 주력시장	유럽, 미국, 일본
현지법인 원료원산지	러시아, 미국

### 3) 고부가가치 가공 후 일본·한국시장으로 수출하는 기업

이 업체는 주로 초밥용 골뱅이, 오징어, 장어 등 다양한 수산물을 가공하여 일본과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 골뱅이의 경우 주로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오징어는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한편, 원료는 물론 중국 현지 원료도 사용하며 생선 초밥용 원료는 가공 생산한 후 주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매출액에서의 비중에서 보면 일본이 80%, 한국이 20%를 차지한다. 초밥용 골뱅이, 오징어, 장어 등의 가공품은 고가가공품이기에 중국 국내소비에는 아직 활성화하기 어려운 상태이어서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공급은 아직은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국 현지의 대형할인점에 납품할 경우 역시 자금 회수 기간이 길어져 회사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기에 지금은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계획은 없으나 향후 내수시장에 진출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업체 역시 중국측 51%와 한국측 49% 합자회사이나 앞의 두 가지 유형의 진출기업과는 달리 정부 지원 혜택에 대해서는 그리 민감하지 않는다. 이는 아직 생선초밥용 가공이라는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에 대한 중국 현지기업과의 경쟁이 그리 강하지 않고 그들만의 특화된 노하우가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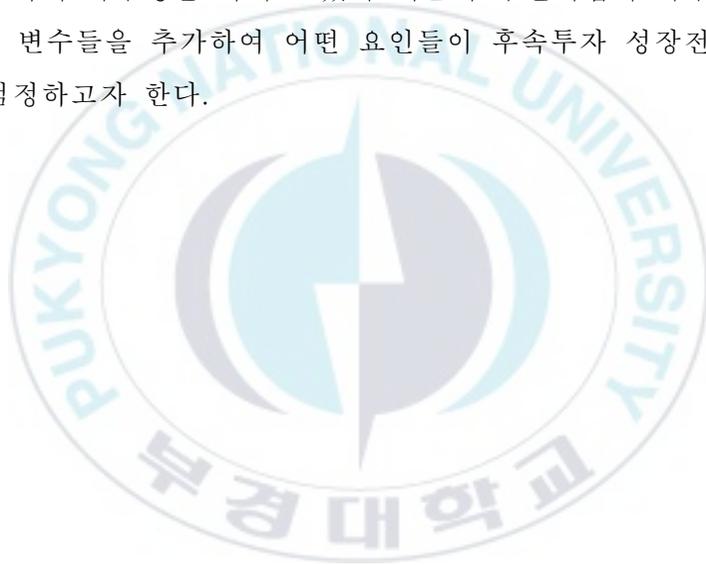
<표 3-11> C사 현지법인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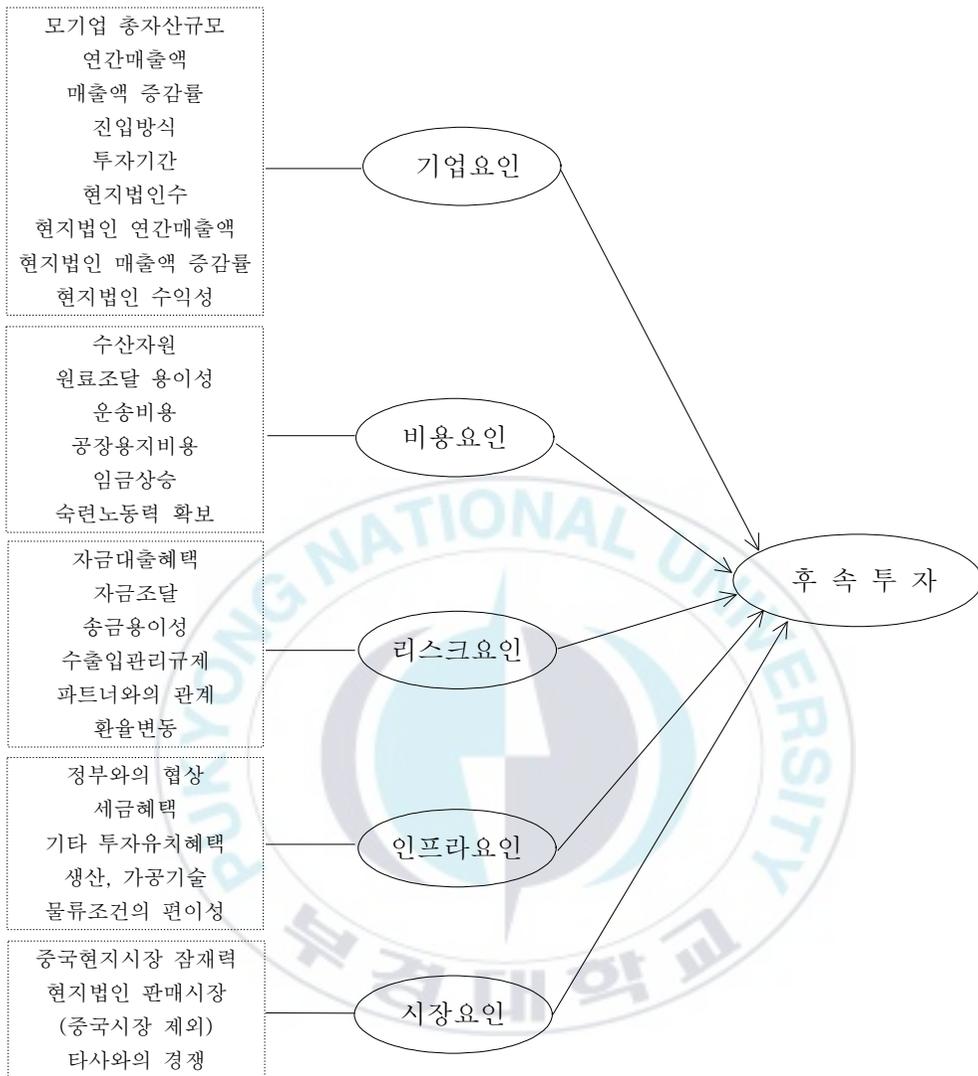
진출연도	2003년
진출방식	합자회사
현지법인 연간매출액	1000만\$
현지법인 종업원수	약 400명
현지법인 주력시장	한국, 일본
현지법인 원료원산지	러시아, 한국, 중국

## 제 4 장 실증분석

###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의 모델은 해외직접투자 이론의 통합적 모형을 따르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이론에서 제시된 변수들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후속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에서 채택한 선행변수들과 현황을 조사하여 추출해낸 경험적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산업은 기타 업종과 비교하여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산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들을 추가하여 어떤 요인들이 후속투자 성장전략에 영향주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림 4-1> 연구모형

따라서 본 논문에서 측정하려는 변수들은 위의 변수들 중에서 선택함과 동시에 수산업의 특성과 실태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림 4-1>의 연구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요인, 비용요인, 리스크요인, 인프라요인, 시장요인으로 나누어 측정하기로 한다. 그리고 연구가설은 <표 4-1>과 같다.

〈표 4-1〉 가설설정

<b>가설1</b>	기업요인은 후속투자 결정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b>가설2</b>	비용요인은 후속투자 결정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b>가설3</b>	리스크요인은 후속투자 결정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b>가설4</b>	인프라요인은 후속투자 결정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b>가설5</b>	시장요인은 후속투자 결정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 제 2 절 변수의 정의와 측정

### 1. 연구변수

####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후속투자 여부를 자료화하기 위하여 후속투자 의향 있으면 '1'을 의향이 없으면 '0'의 값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후속투자 결정요인을 찾기 위해 모기업규모, 현지법인 경영성과, 진입방식, 수산자원, 정부의 정책, 수출시장잠재력, 중국국내시장잠재력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에서 1, 6, 7항은 중국 진출 모기업의 주력업종, 최초투자동기를 보기 위한 문항이고, 10, 15, 16항은 현지법인의 투자업종, 주력시장을 보기 위한 문항들이다.

그리고 <표 4-2>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2에서 5항까지, 8항과 9항, 11항에서 14항까지는 기업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고, 17에서 21항까지, 23에서 25항까지가 비용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다.

26, 27, 38항은 시장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28, 30항 그리고 35에서 37항까지는 리스크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20항, 31에서 34항까지는 인프라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표 4-2> 연구변수

요인	측정내용	설문항목
기업 요인	모기업의 총자산규모	3
	연간 매출액	4
	매출액 증감률	5
	투자기간	8
	현지법인수	9
	진입방식	11
	현지법인 연간 매출액	13
	현지법인 매출액 증감률	14
비용 요인	수산자원	17
	원료조달 용이성	18
	운송비용	21
	임금상승	23
	숙련노동력 확보	24
	공장용지 확보	24
리스크 요인	환율변동	35
	자금조달	36
	자금대출혜택	33
	송금의 용이성	37
	수출입관리규제	28
	파트너와의 관계	30
인프라 요인	정부와의 협상 용이성	31
	세금혜택	32
	투자유치혜택	34
	생산, 양식, 가공기술의 발전성	29
	물류조건의 편이성	20
시장 요인	중국현지시장 잠재력	26
	현지법인 판매시장(중국제외) 잠재력	27
	현지에서 타사와의 경쟁	38

## 2. 연구변수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검증

### 2-1. 표본의 특성

중국에 현지법인 설립 신고건수가 253개 기업인데 그 중에서 수산가공업과 수산물유통·무역업이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산가공업과 유통·무역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모기업 주소와 전화번호 확인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확인과 팩스조사를 병행하였고 모기업 주소 확인 가능한 부산 지역 업체는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일시는 2007년 4월 23일-5월 16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포 및 회수는 <표 4-3>과 같다.

<표 4-3> 설문지 배포 및 회수 현황

업종	배포수	회수빈도	회수율(%)
수산가공업	30	19	63.3
수산물유통·무역업	20	14	70
계	50	33	66

### 2-2.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다. 타당성은 측정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타당성 검증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들간에는 상관관계가 높아야 함으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한 변수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는 것이다.

이 요인분석에서는 최소 고유치(eigenvalue)를 기준으로 요인의 기준을 측정하였고, varimax 방법으로 요인을 회전하였다. 다음 <표 4-4>는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제조업의 후속투자여부 결정요인을 측정하는 크게 5개

요인으로 나뉘었다. 즉 기업요인, 비용요인, 시장요인, 리스크요인, 인프라요인으로 나뉘었다. 본 연구대상인 수산가공업과 수산물유통·무역업의 경우에는 각 요인별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요인, 비용요인, 리스크요인은 각각 3개의 세부 요인으로 다시 묶여지고 인프라요인, 시장요인은 2개의 세부 요인으로 다시 묶여졌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표 4-4>, <표 4-5>, <표 4-6>, <표 4-7>, <표 4-8>과 같다.

<표 4-4> 기업요인 요인분석표

요인명	변수	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모기업요인	모기업의 총자산규모	V3	0.910	0.054	0.199
	연간매출액	V4	0.777	0.389	0.167
	매출액 증감률	V5	0.833	-0.300	-0.117
	진입방식	V11	0.589	0.015	-0.416
현지시장 경험	투자기간	V8	-0.065	0.864	0.136
	현지법인수	V9	-0.079	0.806	-0.417
현지법인경영성과	연간 매출액	V13	0.000	-0.056	0.908
	매출액 증감률	V14	-0.271	-0.133	0.823
	수익성	V22	-0.020	0.000	0.968
Eigen Value			3.322	2.054	1.272
% of Variance			36.915	22.821	14.136
KMO: 0.522, Bartlett 구성형 검정: 346.392, 유의확률: 0.000					

기업요인에서는 각 측정항목의 부하량이 0.3을 넘어서고 고유근 값도 1.0 이상인 항목들을 하나의 요인으로 다시 묶여졌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모기업의 총자산규모, 모기업의 연간 매출액, 모기업의 매출액 증감률, 투자방식이 모기업 규모로 묶여졌으며 현지법인수와 투자기간이 현지시장 경험으로, 현지법인 연간 매출액, 현지법인 매출액 증감률, 현지법인 수익성 만족도가 현지법인 경영성과로 묶여졌다. 요인분석의 적합도 판정을 위한 KMO의 적합도는 0.522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성형 검정치는

346.392로서 유의확률 0.000으로 통계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비용요인 요인분석표

요인명	변수	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원료비용	수산자원	V17	0.826	0.435	0.150
	원료조달 용이성	V18	0.855	-0.020	0.086
물류비용	운송비용	V21	-0.294	0.867	-0.085
	공장용지 확보비용	V25	0.150	0.906	0.159
임금비용	임금상승	V23	-0.315	-0.036	0.898
	숙련노동력 확보비용	V24	-0.094	-0.097	0.861
Eigen Value			1.937	1.581	1.416
% of Variance			32.276	26.345	23.593
KMO: 0.651. Bartlett 구성형 검정: 57.537, 유의확률: 0.000					

비용요인에서는 원료조달 용이성과 수산자원을 원료비용으로, 운송비용과 공장용지 확보비용을 물류비용으로 분류되고, 임금상승과 숙련노동력 확보비용이 동일한 요인으로 분류되고 임금비용으로 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요인분석의 적합도 판정을 위한 KMO의 적합도는 0.651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성형 검정치는 57.537로서 유의확률 0.000으로 통계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리스크요인 요인분석표

요인명	변수	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자금리스크	자금대출혜택	V33	0.921	0.071	0.150
	자금조달	V36	0.876	0.039	-0.240
현지리스크	송금용이성	V37	0.085	0.698	-0.514
	수출입관리규제	V28	-0.533	0.781	0.056
	파트너와의 관계	V30	0.325	0.785	0.188

환율리스크	환율변동	V35	-0.030	0.057	0.907
Eigen Value			1.937	2.097	1.123
% of Variance			32.285	34.950	18.719
KMO: 0.503, Bartlett 구성형 검정: 92.166, 유의확률: 0.000					

리스크요인에서는 수출입관리규제, 파트너와의 관계, 송금 용이성을 현 지리스크로, 자금조달과 자금대출혜택을 동일한 요인으로 묶여지고 자금 리스크로 명할 수 있을 것이다. 환율변동변수의 부하량이 0.907로서 0.3을 넘어서고 고유근 값도 1.123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적인 요인으로 하였다. 요인분석의 적합도 판정을 위한 KMO의 적합도는 0.503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성형 검정치는 92.166로서 유의확률 0.000으로 통계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인프라요인 요인분석표

요인명	변수	항목	요인1	요인2	
정부 정책	정부와의 협상 용이성	V31	0.632	0.104	
	세금혜택	V32	0.952	0.155	
	기타투자유치혜택	V34	0.719	-0.46	
시설	생산, 가공 기술	V29	-0.083	0.931	
	물류조건의 편이성	V20	0.527	0.657	
Eigen Value			2.314	1.128	
% of Variance			46.271	22.564	
KMO: 0.669, Bartlett 구성형 검정: 91.312, 유의확률: 0.000					

인프라요인에서는 정부와의 협상, 세금혜택, 세금혜택을 제외한 기타 투자유치혜택 이 세 가지 변수가 동일한 요인으로 분류되고 정부 정책요인으로 명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 가공기술변수와 물류조건변수가 시설요인으로 묶여졌다. 요인분석의 적합도 판정을 위한 KMO의 적합도는 0.669

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성형 검정치는 91.312로서 유의확률 0.000으로 통계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시장요인 요인분석표

요인명	변수	항목	요인1	요인2
시장잠재력	중국현지시장	V26	0.883	-0.128
	현지법인 판매시장 (중국시장제외)	V27	0.890	0.089
경쟁	타사와의 경쟁 (중국현지)	V29	-0.019	0.995
Eigen Value			2.314	1.128
% of Variance			46.271	22.564
KMO: 0.781, Bartlett 구성형 검정: .12.610, 유의확률: 0.006				

시장요인에서는 중국현지시장의 성장잠재력변수와 중국시장을 제외한 한국시장 등의 수출시장의 성장잠재력변수를 시장잠재력요인으로 묶여졌고 중국현지에서의 타사와의 경쟁변수는 부하량이 0.3를 넘어섰고 고유값도 1.0 이상으로 나타나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되고 경쟁요인으로 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요인분석의 적합도 판정을 위한 KMO의 적합도는 0.781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성형 검정치는 12.610로서 유의확률 0.006으로 통계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3. 신뢰성 검증

신뢰성이란 측정결과에 오차가 들어 있지 않은 정도, 즉 분산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측정치의 신뢰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에는 반분법(Split-half method), 재검사법(test-retest method), 내적 일

관성(internal consistency method)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을 구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내적 일관성은 여러 개의 측정항목 중에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항목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이 방법은 크론바하 알파 (Cronbach's alpha) 라는 계수값을 산출해서 여러 항목들로 구성된 측정방법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크론바하 알파값이 어느 정도이면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0.6이상이 되면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는 기업요인, 비용요인, 시장요인, 리스크요인, 인프라요인 등 5개 요인별로 각 설문항목들을 대상으로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여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제거하기로 한다.

<표 4-9> 신뢰도 분석표

구분		설문 항목수	최초 Alpha	제거된 항목수	최종 Alpha
기업요인	모기업요인	4	0.7474	-	0.7474
	현지시장 경험	2	0.1519	2	제거
	현지법인 경영성과	3	0.4169	1	0.7350
비용요인	원재료비용	2	0.6040	-	0.6040
	물류비용	2	0.7401	-	0.7401
	임금비용	2	0.8081	-	0.8081
리스크요인	자금리스크	3	0.8000	-	0.8000
	현지리스크	2	0.6372	-	0.6372
	환율리스크	1	-	-	-

인프라요인	정부 정책	3	0.6932	-	0.6932
	시설	2	0.6323	-	0.6323
시장요인	시장잠재력	2	0.7191	-	0.7191
	경쟁	1	-	-	-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요인 중의 모기업규모요인, 비용요인, 리스크요, 인프라요인, 시장요인 중의 시장잠재력요인의 신뢰성 계수 즉 크론바하 알파의 값이 0.6이상으로 나타남으로써 측정도구의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요인중의 현지시장 경험요소와 현지법인 경영성과의 신뢰성계수는 각각 0.1519, 0.4169로 나타나 다른 요인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측정도구의 일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지시장 경험요소와 현지법인 경영성과중의 현지법인 연간 매출액 변수를 제거하여 각 요인들의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제 3 절 로지스틱 회귀분석

여기에서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각각의 요인점수와 후속투자여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앞에서 정의한 가설을 검증하기로 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모수 추정치가 주어진 경우 관측치의 확률을 우도(likelihood)라고 하는데 우도는 1보다 작은 수로 추정된 모형이 얼마나 자료에 적합한가에 대한 측정치로서 우도의 로그의 -2배(-2LL: -2 Log Likelihood)로 이용한다. 관측된 결과의 우도가 높을 때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형이 관측된 자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지, 즉 모형이 얼마나 적합한가를 측정하는 도구로 적합도 통계량(goodness-of-fit statistic)이 있는데 이는 관측된 확률과 모형에 의해 예측된 확률을 비교함으로써 가능하다.

<표 4-10>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표

구분	Variable	B	S.E	Wald	Sig	Exp(B)
기업 요인	모기업요인	0.610	0.449	1.842	0.175	1.840
	현지법인 경영성과	1.258	0.610	4.258	<b>0.039</b>	0.284
비용 요인	원재료비용	-0.076	0.342	0.049	0.825	0.927
	물류비용	1.892	0.784	5.824	<b>0.016</b>	6.635
	임금비용	1.856	0.655	8.027	<b>0.005</b>	6.399
리스크 요인	현지리스크	0.278	0.349	0.635	<b>0.025</b>	1.320
	자금리스크	0.390	0.351	1.237	0.266	1.477
	환율리스크	0.464	0.354	1.1717	<b>0.010</b>	1.591
인프라 요인	정부 정책	15.965	84.586	0.036	<b>0.001</b>	8.768
	시설	0.562	0.358	2.465	0.116	1.753
시장요인	시장잠재력	1.730	0.753	5.275	<b>0.022</b>	5.639
	경쟁	-1.099	0.830	1.752	0.186	0.333
-2Log 우도: 38.315 chi- Square : 10.587, 유의확률: 0.004 Hosmer와 Lemeshow 검정 유의확률: 0.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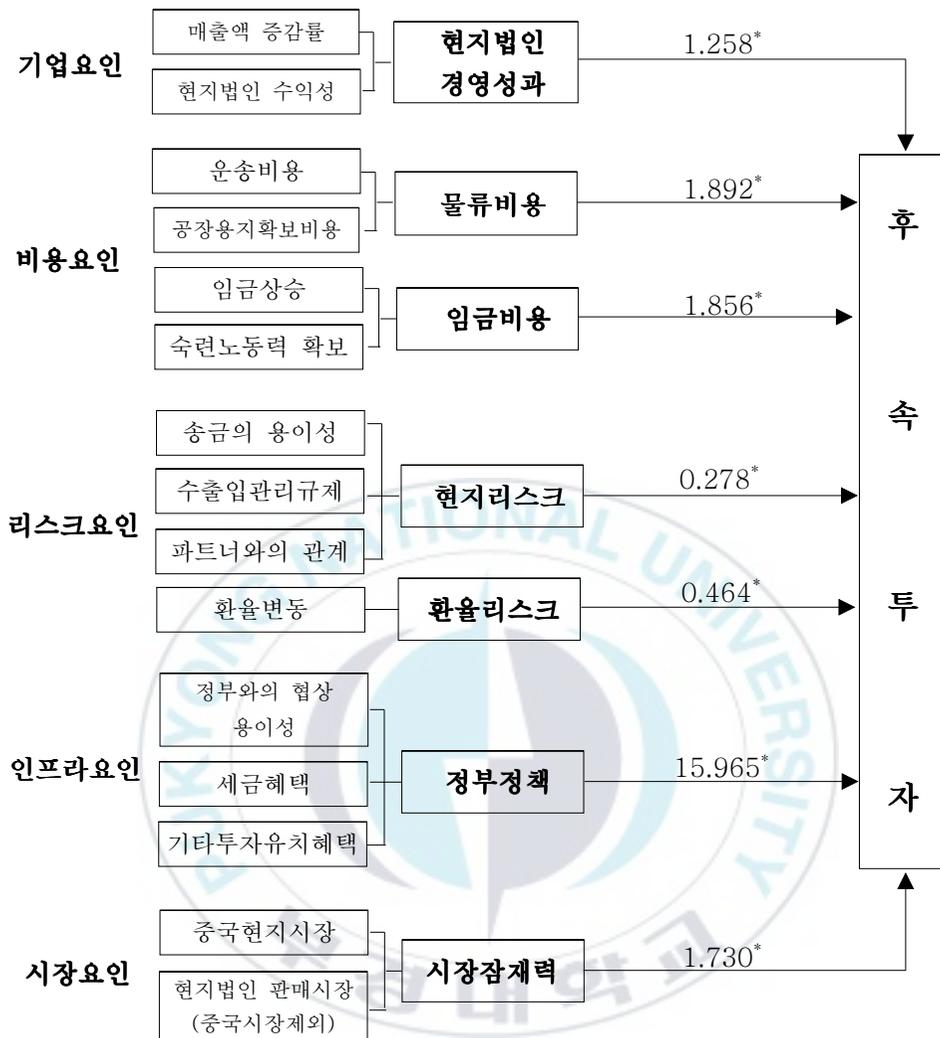
주: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함.

<표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요인에서는 현지법인경영성과, 비용요인에서는 물류비용, 임금비용, 리스크요인에서는 현지리스크와 환율리스크, 인프라요인에서는 정부 정책, 시장요인에서는 시장잠재력요인의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게 나타나 기업요인, 비용요인, 리스크요인, 인프라요인, 시장요인이 후속투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이 채택되었다.

〈표 4-11〉 가설검증 결과

<b>가설1</b>	기업요인은 후속투자 결정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채택
<b>가설2</b>	비용요인은 후속투자 결정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채택
<b>가설3</b>	리스크요인은 후속투자 결정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채택
<b>가설4</b>	인프라요인은 후속투자 결정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채택
<b>가설5</b>	시장요인은 후속투자 결정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채택

한편, 이런 요인간의 로지스틱 회귀계수 결과를 정리하면 <그림 4-2>와 같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앞의 기업요인, 비용요인, 리스크요인, 인프라요인, 시장요인이 중국진출 수산기업의 후속투자에 각각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특히 인프라요인 중 중국 정부정책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의 중국진출 사례연구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중국 정부의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우대혜택정책(법인세 감면 등)이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해외진출기업의 후속투자에 위축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요인은 단순한 수산원료지향적 진출기업과 노동지향적 진출기업의 후속 경영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물류비용, 원료비용의 급격한 상승 역시 후속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중국 현지 시장잠재력 및 해외시장개척, 확대(일본, 한국 생선초밥가공사례)에 따라서는 후속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 \*P<0.05

<그림 4-2> 중국진출 한국수산기업의 후속투자 결정요인

## 제 5 장 결 론

### 제 1 절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모기업이 후속투자여부 의사 결정에 영향 주는 요인을 고찰해 보았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후속투자 결정요인에 영향 주는 요인으로서 기업요인, 비용요인, 리스크요인, 인프라요인, 시장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요인을 보면 현지법인 경영성과가 후속투자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기업이 클수록 후속투자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현지법인 경영성과가 높아야 후속투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비용요인을 보면 원료조달, 운송비용, 공장용지 확보, 숙련노동력 확보, 임금상승이 결정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최초 수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자원지향형 투자로서 투자업종도 어업 부문에만 치우쳤는데 현재는 수산가공업, 수산물유통·무역업 등 다양한 업종에 진출하고 있다. 수산가공업과 수산물유통·무역업에 진출한 기업은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기업들은 자원보다도 생산효율 지향형 진출기업으로서 후속투자 결정 시 수산자원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고 있다. 원료의 경우는 러시아 등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원료조달의 용이성보다 운송비용, 수산가공공장 설립시 공장용지의 확보에 투입되는 비용, 일반노동력 및 숙련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 중국현지의 점점 상승하는 최저인건비기준 등 물류비용과 임금비용요인이 후속투자 전략수립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크요인을 보면 수출입관리규제, 파트너와의 관계, 송금의 용이성 등

현지리스크요인이 후속투자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현지에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수출입할 때 중국의 수출입관리규제가 엄격하면 중국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현상유지 또는 철수전략을 수립하는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 중국진출 기업 대부분이 합작·합자 투자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후속투자전략을 수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한편, 자금조달, 자금대출혜택 등 자금리스크는 후속투자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것은 중국에 진출한 수산기업은 대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건당 평균 투자금액을 보면 제조업의 약 6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금조달문제는 모기업에서 해결하는 기업들이 다수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거나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대출혜택정책을 일정하게 주는 반면 사실상 외국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혜택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때문에 중국정부의 자금대출혜택의 많고 적음은 후속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환율리스크요인은 후속투자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미국 달러 등에 대한 환율을 표시하기 시작한 것은 1957년부터이다. 그것은 계획경제에 의한 완전고정환율제로 1971년까지 환율은 전혀 변동이 없이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환율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환율변동이 심할 경우 손익이 많이 발생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후속투자 전략의 수립은 환율리스크의 영향도 받기도 한다.

인프라요인을 보면 정부와의 협상, 세금혜택을 포함한 투자유치혜택이 후속투자 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국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 우대정책에는 행정적 우대, 조세법상의 우대정책이 있는데 정부와의 협상이 용이하지 않으면 경영활동상의 편이성이 떨어져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중국은 1994년 공상세제(工商稅制)개혁 이후 다시 세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의 중심은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세계상의 공평성과 국내외 기업에 대한 무차별대우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세제 개혁으로 지금까지 외국인투자기업에 주어지던 기업소득세의 우대세율이 폐지되고 일부 남아 있는 부가가치세, 소비세 및 관세 상의 우대도 중국기업들과 차별성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중국진출 수산기업은 세계상의 혜택 등 우대정책이 점점 없어져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지면서 후속투자 전략을 수정하는 가능성이 높다.

가공 등 생산기술과 물류조건 등 시설요인은 후속투자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까지는 중국진출 수산가공업은 중국에서 주로 단순가공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공기술의 발전은 후속투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중국정부에서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기업들이 자기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것과 같은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교통, 항만시설 등 현지에서의 사업여건이 많이 발전되었다. 따라서 물류조건의 편이성 등 시설요인은 후속투자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시장요인을 보면 중국현지시장의 시장잠재력과 현지법인의 판매시장(중국시장제외)의 잠재력이 후속투자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판로부진하면 후속투자를 하지 않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수산기업들은 최초의 자원지향형 진출로부터 현재의 생산효율지향형으로 투자동기를 시장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시장은 아주 방대한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대하여 기업들은 아직은 두려움도 있고 여러 예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을 두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하려는 기업이 다수다. 향후 기업들은 점차 시장지향형 진출로 바꾸어 갈 것이며 또 생산효율지향형과 시장지향형을 병행하는 진출로 변해갈 것이다.

타사와의 경쟁은 후속투자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현지에서의 타사와의 경쟁이 치열해짐에도 불구하고 중국시장의 성장가능성 그리고 중국에 투자하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타사와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후속투자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에 후속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정부정책요인, 비용요인, 시장잠재력요인, 경영성과요인, 리스크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정부정책요인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요인들도 후속투자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정부정책요인은 기업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민감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경영자의 투자의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중국의 불안정한 제도적 변화도 경영자의 주관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정책요인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중국의 낮은 임금비용을 투자동기로 하는 단순가공 기업들은 점점 인상하는 임금, 세금혜택의 폐지,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현지 수산기업의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다. 때문에 한국 수산기업들은 중국진출의 전략을 고부가가치상품의 개발, 생산 등 새로운 아이টে็ม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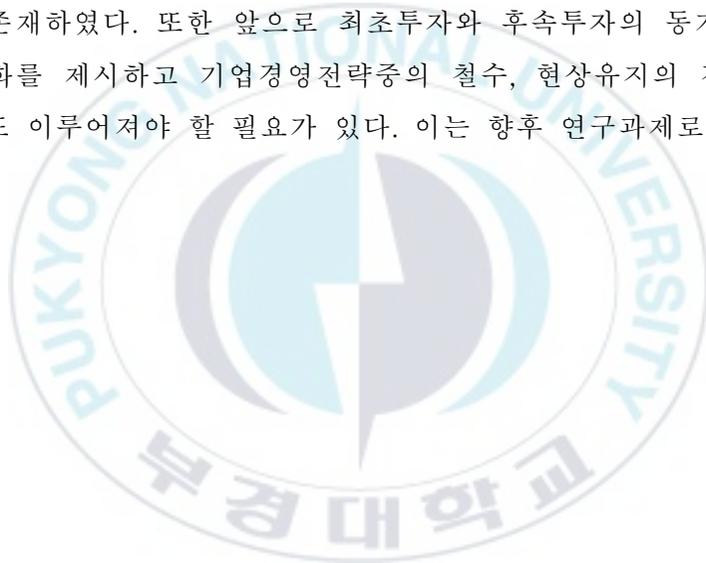
##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에서 얻은 결과를 통해 중국진출 수산기업이 중국 정부의 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산가공업, 수산물유통·무역업 기업에 있어서는 수산자원의 풍부함도 중요하지만 세금혜택 등 중국정부의 투자유치우대정책이 점차 폐지됨으로 인해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게 되고 행정상과 조세법상의 우대정책이 사라짐으로써 사업여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 현상유지하거나 철수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한편, 제조업에 관한 해외직접투자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 수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적은 편이다. 후속투자 결정요인을 보면 수산가공업과 수산물유통·무역업 기업은 일반제조업의 후속투자 결정요인과 비슷하여 점차 수산가공업은 일반제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초기의 투자는 자원지향형투자가 주된 투자동기

이었는데 이는 생산효율지향형투자로 변화면서 직접투자도 많이 이루어지면서 정부정책요인, 물류비용과 임금비용, 시장잠재력요인들이 수산자원요인보다 후속투자 결정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거대한 소비시장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시장지향형투자로 변하게 되면서 정부의 우대정책이 사라지면서 이는 외국인기업에 있어서는 투자유인요소로 되지 않고 오히려 시장잠재력요인이 주된 투자동기로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모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주소확인 가능한 업체만 팩스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표본추출에 있어서 편의성이 존재하였다. 또한 앞으로 최초투자와 후속투자의 동기 및 투자 유형의 변화를 제시하고 기업경영전략중의 철수, 현상유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 【참 고 문 헌】

- 강태구, “한국 전자기업의 후속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제경영연구 제13권 제2호, 2002
- 강태구, “국제경영학”, 博英社, 1997.
- 김익수, 한병섭, “한국 조립금속업체의 對中 후속투자 결정요인 분석”, 국제경영연구 제11권 제2호. 2000
- 김신, “국제경영학”, 博英社, 2003.
- 김희천, “한국수산업의 해외진출전략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논집 제14집. 1983
- 박영렬, “한국 제조업체의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 합작투자와 단독투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세경영연구 제36권 제1호, 1995
- 박영렬, 박용석, 김은희, “일본제조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소유 지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연구 12권 2호, 1-30, 2001
- 서동혁, “韓國製造企業의 初期 海外投資와 後續投資 進入方式 決定要因에 관한 研究: 對中國 投資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 염정순, “중국 청도지역 한국투자기업의 투자동기 및 성과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 오용석, “현재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나남출판, 2004. 9
- 이애선, “한국 제조업체의 중국 진출 후속투자(Sequential FDI)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재기, “글로벌시대의 해외투자론”, 신문사, 2005.
- 정구현 “국제경영학”, 法文社, 1997.
- 정윤모, “한국수산업의 해외직접투자전략에 관한 실증연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전공 석사학위논문, 1987

- 최정윤, “수산경영학”, 해암, 2003
- Kotra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下 2005/2006”, Kotra.
- 包 特力根白乙, “中國における水産貿易とその規定要因”, 漁業經濟研究 第49卷 第3号, 2004
- 李 志明, “日本企業の海外進出と撤退の實態とその要因に関する研究”, 東京海洋大學校, 2004
- 大日本水産會 “水産業における海外直接投資に関する総合研究(II)”, 大日本水産會, 1994. 3
- 濱田英嗣 “中國の水産合併と各國資本—沿海北部(大連・煙台)を中心として—”, 漁業經濟研究 第38卷 第4号, 1994
- 石井昌司, “日本企業海外事業展開”, 中央經濟社, 1992
- 齊藤高宏, “わが國食品産業の海外直接投資”, 筑波書房, 1992
- 洞口治夫, “日本企業海外直接投資-アジアへの進出と撤退”, 東京大學出版會, 1992
- Barkema, H.G., J.H. Bell and J.M. Pennings (1996), "Foreign Entry Cultural Barriers, and Learning",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7, 151-166.
- Barney, Jay (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1). 99-120.
- Chang S. J. (1995), "International Expansion Strategy of Japanese Firms: Capability Building through sequential Entr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2), 383-408.
- Chang S. J. and P. M. Rosenzweig(2001), "The Choice of Entry mode in Sequential Foreign Direct Innov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 747-776.
- Dunning, J. H. (1980), "Toward an Eclectic Theory International Production: Some Empirical Tes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Spring/Summer, 9-31.
- Davidson, W.H. (1980), "The Loc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ctivity: Country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 Effec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1(2), 9-22.

- Johanson J. and F. Wiedersheim-paul (1975), "The Internationalization Process of the Firm - Four Swedish Case",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October, 305-322
- Johanson J. and J. Vahlne. (1977) "The Internationalization Process of the Firm - A Model of Knowledge Development and Increasing Foreign market Commitm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8, 23-32.
- Kogut, B. and Zander (1993), "Knowledge of the firm and the evolutionary theory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4(4).
- Kogut, B. (1983), "Foreign Direct Investment as a Sequential Process", in C.P. kindleberger and D.B. Andretsch(eds.),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in the 1980s, Cambridge:MIT Press, 35-56.
- Kogut, B. and N. Kulatilaka (1994), "Options Thinking and Platform Investments: Investing in Opportunity",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Winter, 52-71.
- Rindfleisch, Aric and Jan B. Heide (1997), "Transaction Cost Analysis: past, Present, and Future Applications", Journal of Marketing, 61(October), 30-54.
- Teece David J., G. Pisano, and A. Shuen (1997), "Dynamic capabilities and strategic manage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8(7), 509-533.

## 【부 록】

### 중국진출 수산기업의 후속투자여부 결정요인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중국 해외현지법인 설립 한국수산기업을 대상으로 모기업이 성장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가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기업을 대표하는 경영진 여러분께서 직접 작성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그 결과는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귀사에 누를 끼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만일 본 설문지에 관해 의문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지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당자: 장영수 교수, 장춘봉 연구원  
대학: 부경대학교 해양산업경영학과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599-1번지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수산과학대학 해양산업경영학과  
전화: 010-8851-1982, 051-620-6517

● 다음은 귀사(본사)의 전반적인 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본사의 창설연도는? \_\_\_\_\_년
2. 본사의 종업원 수는? \_\_\_\_\_명
  - ① 10명 이하                      ② 11 ~ 30명                      ③ 31 ~ 50명
  - ④ 51 ~ 70명                      ⑤ 71 ~ 90명                      ⑥ 기타(                      )
3. 본사의 총자산규모는? \_\_\_\_\_원
  - ① 5억 미만                      ② 5 ~ 10억                      ③ 11 ~ 20억
  - ④ 21 ~ 30억                      ⑤ 31~40억                      ⑥ 기타(                      )
4. 본사의 연간 매출액은? \_\_\_\_\_원
  - ① 10억 미만                      ② 10 ~ 30억                      ③ 31~ 50억
  - ④ 51~ 70억                      ⑤ 71억~90억                      ⑥ 기타(                      )
5. 본사의 매출액 성장률은? \_\_\_\_\_% (최근5년 평균치)
  - ① 5% 미만                      ② 5 ~ 10%                      ③ 11 ~ 15%
  - ④ 16 ~ 20%                      ⑤ 20% 이상                      ⑥ 기타 (                      )
6. 본사의 주력업종은? (하나만 V )
  - ① 수산가공업                      ② 유통/무역업                      ③ 어업
  - ④ 양식업                      ⑤ 기타 (                      )
7. 귀사가 중국현지법인을 설립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해당사항에 모두 V)
  - (1) 안정적인 원재료공급선의 확보를 위하여
  - (2)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 (3)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 (4) 배당 등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 (5)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 (6) 수출입에 수반하는 환율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 (7) 현지시장 및 제3국시장으로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 (8) 기타\_\_\_\_\_

● 다음은 중국현지법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8. 최초투자 연도는? \_\_\_\_\_ 년

9. 중국현지법인 수는? \_\_\_\_\_ 개

10. 중국현지법인의 위치(도시명)\_\_\_\_\_

11. 투자방식은

① 단독투자      ② 합작·합자투자(소유지분을 \_\_\_\_\_%)

12. 중국현지법인 종업원수 \_\_\_\_\_명 (한국인 \_\_\_\_\_명)

13. 중국현지법인 연간 매출액은 \_\_\_\_\_ US\$

① 10만불 미만      ② 11 ~ 30만불      ③ 31 ~ 50만불  
④ 51 ~ 70만불      ⑤ 71 ~ 90만불      ⑥ 기타(            )

14. 매출액 성장률은 \_\_\_\_\_% (최근 5년 평균치)

① 5% 미만      ② 5 ~ 10%      ③ 11 ~ 15%  
④ 16 ~ 20%      ⑤ 20% 이상      ⑥ 기타 (            )

15. 중국현지법인 투자업종은? (주된 하나만 V)

① 수산가공업      ② 유통/무역업      ③ 어업  
④ 양식업      ⑤ 기타 (            )

16. 중국현지법인의 주력시장은?

① 현지시장      ② 한국시장  
③ 제3국시장 (국가명) \_\_\_\_\_, \_\_\_\_\_

● 다음은 후속투자의 의사결정요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현재 중국의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귀사가 취급하는 어종)	①	②	③	④	⑤
18. 중국현지에서의 원재료조달은 용이하 다.	①	②	③	④	⑤
19. 해외에서 중국현지로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가공수출형 원재료에 대해 세제혜 택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0. 중국현지에서 원재료, 생산품 수출입 시 운송이 편리하다.(물류조건)	①	②	③	④	⑤
21. 중국현지에서 수출입 시 운송비용이 상 대적으로 적다.	①	②	③	④	⑤
22. 중국현지법인의 수익성에 대해 만족하 다.	①	②	③	④	⑤
23. 중국현지 임금이 상승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중국현지에서 숙련노동력 확보가 어렵 다.	①	②	③	④	⑤
25. 중국현지에서 공장용지 확보가 용이하 다.	①	②	③	④	⑤
26. 중국현지 시장성장 가능성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27. 중국현지법인의 판매시장(중국현지시장 제외) 성장잠재력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28. 중국현지에서 수출입시 상대국의 수출 입관리규제는 엄격하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보통	그렇다	매우

